

계란, 대형유통매장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 올해 계란가격 대형유통매장들의 세일기간과 밀접한 관계 보여 -

올해는 전반적으로 사육수 증가로 인해 계란가격이 평년 수준보다 낮게 형성된 반면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 산란계농가는 물론 유통업체도 힘겨운 한해를 보내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는 공중파 방송사들이 잇따라 계란의 안전성을 다루는 고발성 보도로 인해 채란업계를 분노케 했으나 생산현장에서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제도의 도입으로 계란의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러한 와중에도 부화장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자조금이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산란계자조금이 조성되고 있어 한 가닥 희망을 엿볼 수 있었던 한해였다.

안전축산물에 대한 관심 증가

지난 5월 공중파 방송인 KBS는 환경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산란계를 '알 낳



이희영
조선신문사 기자

는 공장'이란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 보도함에 따라 채란업계를 분노케 했다.

특히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현장과 동떨어진 것으로 KBS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 방송이 나간 직후에도 KBS는 또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브랜드계란과 특수

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7월에는 MBC가 '불만제로' 프로그램을 통해 계란의 냉장유통실태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계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계란소비가 위축되기도 했다.

이처럼 계란관련 방송이 잇따른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이 안전축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며 이에 대한 채란업계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금년 3월 처음 도입된 무항



생체축산물인증제는 국내산 계란의 안전성이 높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계기가 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11월 현재 현재 유기축산물을 포함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획득한 산란계 농장은 178건에 달하며 이는 전체 친환경축산물인증 335건의 53%에 해당하는 것이다.

표1. 친환경축산물인증현황

축종	건수
한육우	42
젖소	6
돼지	26
산란계	178
육계	72
산양	5
오리	3
사슴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1월 현재>

계란이 무항생제인증제의 도입이후 가장 많은 인증을 획득한 것과 관련 채란업계는 “산란계의 경우 산란기간에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사육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어 인증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무항생제인증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계란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친환경축산물 인증제 도입이후 인증 받은 계란의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계란가격 대형마트에 물어봐?

올해 계란가격은 전반적으로 평년 수준을 밑돌아 농가는 물론 계란유통업계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육수수는 사상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는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표2. 산란계 사육수수 현황

월령	2005년 9월	2006년 9월	2007년 9월
3개월 미만	6,831,377	6,416,750	6,092,535
3~6개월	8,117,789	5,970,789	6,216,337
6개월 이상	40,068,186	43,000,509	42,808,266
합계	55,017,352	55,388,048	55,117,138

표3. 산지계란가격 변동현황 (서울 특란기준)

변경일	가격	변경일	가격	변경일	가격
1/10	104	5/01	88	8/16	100
1/24	109	5/10	93	8/24	106
2/06	103	5/18	98	9/03	112
2/20	98	5/31	93	9/28	106
3/08	104	6/13	87	10/08	108
3/15	109	6/29	82	10/25	105
4/06	89	7/30	88	11/08	109
4/07	82	8/08	94	11/15	115

5천5백만수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년도 계란 가격은 상당히 재미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이 계란 가격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대형유통매장들의 세일기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올해 계란가격 변동 상황은 대형유통매장의 세일기간을 전후로 계란가격이 변동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에 2번의 행사가 있었으며 이 때 2번의 가격상승이 있었으며 세일이 없었던 2월에는 2번이 하락했다. 또 3월 8일에는 행사가 실시되면서 계란가격도 동반 상승했다. 4월의 경우도 3월말부터 4월 초까지 행사가 실시되면서 4월 초순까지 강세를 보였지만 행사가 끝난 직후 하락했다. 5월에는 행사가 집중되면서 거의 한달 내내 행

사가 실시됐으며 계란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6월과 7월의 경우 2개월간은 세일행사가 단 한번 밖에 없었으며 이 기간 동안 계란 가격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8월에는 2번의 행사와 함께 추석 수요로 인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추석 이후에도 대형유통매장들이 시장 주도권을 놓고 벌이고 있는 경쟁으로 인해 연일 행사가 진행되면서 계란 가격도 덩달아 상승세를 이어나가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계란 유통시장에서 대형유통매장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만큼 높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채란업계는 물론 계란 유통업계 입장에서는 상당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계란유통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년 들어 대형유통매장들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세일행사가 거의 매월 실시되고 있으며 심할 경우 한 달 내내 세일에 들어간 적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계란유통업계는 이들 대형유통매장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한번 행사를 실시하며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억 단위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형유통매장들의 입지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채란업계의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계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노력도 절실한 실정이다.

산란계자조금 절반의 성공

올해 산란계 자조금은 1992년 처음으로 자

조금을 거출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자조금이 조성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의무자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자조금법으로는 수납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법 개정이 절실한 실정이지만 올해도 이 같은 채란업계의 바람은 실현되지 못하고 임의자조금으로 추진됐다.

채란업계는 그 동안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해 수납기관을 배합사료 또는 부화장으로 하는 방안을 갖고 관련업계와 협의해 왔다.

하지만 배합사료업계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불가 입장을 표명하면서 다시 부화장을 수납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부화업계 역시 강제 환우, 판매자와 실수요자의 불일치 등으로 역시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왔다.

산란계자조금은 11월 15일 현재 총 2억6천499만1천원으로 조성 목표액 3억226만1천원으로 조성 목표액 3억226만1천원의 87%를 달성했다.

이미 지난해 거출금액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산란계자조금 사업을 시작한 지난 1992년

표4. 연도별 자조금 조성현황

연도	농가조성액	정부보조금	합계
2000	40,161	18,280	58,441
2001	54,509	52,291	106,800
2002	46,736	44,830	91,566
2003	-	-	-
2004	53,387	52,985	106,372
2005	82,704	80,989	163,693
2006	122,368	120,945	243,313
2007	(계획)322,610	300,000	602,261
	(현재)264,991	-	-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현재까지 거출된 2억6천499만1천원 중 부화업계 1억4천만원, 배합사료업계 3천5백만원 등 1억7천5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산란계 농가들이 납부한 자조금은 8천999만1천원으로 전체의 34%에 불과하다.

1억2천236만8천원이 거출된 지난해의 경우 배합사료업계 및 부화장들의 참여가 거의 미미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지난해보다도 부진한 실적이다.

더욱이 수도권, 충청, 강원도내 채란지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의 참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며 대규모 농장들의 참여는 더욱 저조한 실정이다.

11월에 들어서면서 대군 사육농가들의 참여가 잇따르고는 있지만 아직도 지방과 대규모 농장들의 참여는 절실하다.

또한 매년 자조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던 지부들조차 무임승차자들에 대한 반발로 인해 올해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란계는 수납기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당장 의무자조금을 도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유통구조의 개선은 물론 의무자조금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더욱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축종과 전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 법 개정이 반드시 관철돼야 하며 법 개정에 앞서 다양한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는 계란의 유통경로를 단순화 시켜 계란전문유통센터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양계**